

농산물·석유류 등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범부처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과일류 할인지원 및 상반기 수입과일 관세인하 물량 30만톤 신속 도입
-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하여 석유류 편승 인상 집중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월 29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지난주(2.22일) 물가안정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 및 향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기재부(주재), 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최근 물가여건은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가 2% 중반(2.5%)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주에도 작년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중동지역 불안으로 상승했던 국제유가가 80불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2월 물가는 1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어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가격 상승률(전년비, %, aT, 2.28일 기준) : (사과)29.3 (배)48.2 (토마토)23.3 (대파)22.4 (딸기)5.4

** 국제유가(불/배럴 두바이) : ('23.7)80.5 (8)86.5 (9)93.0 (10)89.8 (11)83.5 (12)77.4 ('24.1)78.9 (2.1~2.27)80.8
휘발유 가격(원/리터) : ('23.8)1,716 (9)1,769 (10)1,776 (11)1,684 (12)1,600 ('24.1)1,569 (2.1~2.27)1,612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일의 경우 3월에도 사과·배 등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들도 과일 직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상반기 수입과일 관세인하 물량 30만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3월 1달 동안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전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격 인상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사무관	이은우 (felizlew@korea.kr)
			사무관	성지현 (jeeeeee629@korea.kr)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책임자		
		담당자	주무관	김송희 (shee111@korea.kr)